

# 실시간 온라인 수업 토론 활동의 중층성에 대한 개념적 탐색

박양주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 Multiplicity of Synchronous Online Class Discussion Activity: A Conceptual Exploration

Yangjoo Park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Hannam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통신 기술을 적용한 온라인 수업 토론 활동의 중층적 구조와 역동적 전개 양상을 개념적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에 근거하여 온라인상에서의 개별 발화를 활동체제의 산물로 간주하였으며, Alderfer의 욕구 위계이론을 주체의 동기와 의도를 분석하는 틀로 활용하였다. 온라인 수업 토론은 전체로서 하나의 활동체제로 작동하며, 특별히 활동 주체들의 욕구에 따라 기본 방향과 성격이 규정된다. 주체의 존재, 관계, 성장의 욕구에 따라 이들의 수업 토론 활동은 물리/생물적 차원, 문화/제도적 차원, 사회/관계적 차원, 협력적 지식 구성의 차원으로 규정된다. 이는 개별 활동 체제 안에 중층적으로 존재하며, 각자의 관심과 처지에 따라 배열이 달라지고, 동시에 활동체제 간의 협력과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통해 집단적 토론 활동은 복잡하고 역동적으로 발전한다.

주제어 : 온라인 토론, 실시간 토론, 수업 토론, 활동이론, 욕구위계이론

**Abstract** In this study, the multiplicity of synchronous online class discussion activity is explored at conceptual level. From the cultural-historical activity theory (CHAT), each utterance may be considered as a product of the activity system. Alderfer's ERG theory is employed as another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study. Based on the subject's existence, relationship, growth needs, their class discussion activities constitute four different dimensions: physical/biological, cultural/institutional, social/relational, and cooperative knowledge construction. It is inherent in individual activities and has a different arrangement according to their interests and situations, and at the same time acts as a factor of cooperation and competition among the participants. Through this, collective discussion activities represent complex and dynamic development patterns.

**Key Words** : online discussion, synchronous discussion, class discussion, activity theory, ERG theory

### 1. 머리말

기술의 발달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의 실체도 바꾸어 놓았다. 이는 수업의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하고, 교실 안과 밖, 수업 시간 전과 후까지 수업 활동을 확장

하였다[1]. 수업 활동에 실시간 통신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토론 역시 전통적인 교육적 소통 방식을 변화시켰고, 수많은 관련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선행 연구들은 일관되게 실시간 온라인 수업 토론의 복잡성과 역동성, 맥락성 등의 특성을 지적하면서, 이들

\*This work was supported by 2017 Hannam University Research Fund.

\*Corresponding Author : Yangjoo Park (yjpark90@hnu.kr)

Received December 3, 2018

Accepted March 20, 2019

Revised March 7, 2019

Published March 28, 2019

을 포괄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2]. 사회문화적 전통의 연구자들은 문화역사적 활동이론(cultural historical activity theory, 이하 CHAT)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한다[3,4].

예를 들어 박양주[5]는 컴퓨터매개통신(CMC) 연구의 최소분석단위를 문장이나 어절, 단어 등과 같은 표면적 특성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하나의 체제를 이루고 작동하는 활동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ngeström의 활동체제모형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확인하고 서술함으로써, 하나의 발화(utterance) 단위를 사회문화적 맥락의 총체로 이해할 수 있음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CHAT의 이론적 입장과 Engeström의 활동체제모형을 활용한 연구들의 관행 간에는 상호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6]. 활동체제 모형은 현재의 활동을 객관적이고 안정적인 체제로 묘사하게 하지만, 정작 CHAT의 기본 주장은 활동체제가 주체의 욕구, 주어진 조건, 공동체의 맥락 등에 따라 달라지고, 그 발생과 발달의 궤적에 따라 요동치고 있다고 강조하기 때문이다.

CHAT에 의하면, 모든 활동은 주체의 주관적 욕구에 근거하고 있으며 외부의 대상을 지향하고 있다[7]. 동일한 객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주체의 상이한 욕구는 각자의 활동체제에 고유한 방향과 양상을 부여한다. 동일한 주체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욕구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활동체제 역시 변화한다. 전술했던 바와 같이, 특정 영역(예를 들어 CMC)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객관적 활동체제가 존재한다는 식으로 활동체제 모형을 규정한다면 이는 CHAT의 기본 원리와 상충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체의 욕구에 따라 활동 체제가 어떻게 중층적으로 규정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지를 개념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온라인 수업 토론 참여자의 욕구와 의도가 다양한 수준으로 존재하고 작용함을 살피고, 이에 따라서 각각에 대응하는 활동체제가 어떻게 상이하게 구현되는지를 개념 수준에서 논의할 것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 수업 토론 활동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이해하고, 설명해낼 수 있는 하나의 개념적 도구를 탐색하는 것이 본 소고의 목적이다.

탐색적 논의를 위한 이론 틀로서 CHAT과 Alderfer의 ERG 이론을 활용하였다. 이하에서는 이 이론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들의 종합을 통하여 온라인 수업 토론 활

동의 중층적 구조를 서술할 것이다. 아울러 이를 실제의 토론 사례에 적용해 봄으로써 제시된 개념적 논의의 타당성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 2. 이론적 관점

### 2.1 문화역사적활동이론 개요

CHAT은 Vygotsky 이론에 뿌리를 두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온 심리학 이론이다. CHAT에서 주목하는 활동(activity)은 행동주의의 행동(behavior), 주관주의 심리학의 의식(consciousness)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Vygotsky[8]에 의하면, 인간 심리는 그것이 관찰되는 외부의 단서(행동)나 혹은 그것을 추동해낸 내부의 요인(의식) 어느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다른 생명체들과 다른 인간 사고의 고유한 특성은 언어와 같은 문화역사적 산물을 매개로 하여 내부의 의식과 외부의 행동을 종합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심리학의 대상은 행동이나 의식이 아니라, 주체와 객체, 그리고 이를 매개하는 도구의 총체여야 하며, 이를 일컫는 개념이 활동이다.

Leont'ev[7]는 공동체, 분업, 규칙 등 사회경제적 맥락의 의미를 종합하여 활동 개념을 발전시킨다. 주체의 개별적 행위들은 전체 집단의 분업체제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정당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족사회의 집단적 수렵 활동 상황에서 어느 물이꾼이 소음을 발생시키며 사냥감을 몰아가는 행위는 다른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추수꾼과의 역할 분담, 이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사냥감을 분배/공유하게 되는 규칙 등을 고려할 때 비로소 유의미한 해석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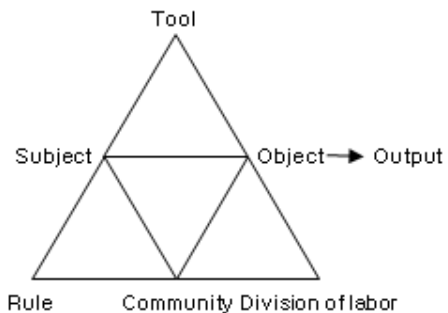


Fig. 1. Engeström's Activity System Model

Engeström[9]은 활동체제모형으로 활동의 개념을 조직화하고 시각화함으로써 CHAT의 이론적 발전과 대중화에 기여했다. 활동체제모형은 주체, 객체, 도구, 공동체, 규칙, 분업의 여섯 개 요소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된다. 이들을 ‘체제’로 구성한다는 것의 강조점은, 무엇보다도 활동 안에서의 상호 규정성, 상호 의존성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각 요소들이 분절적이고 서로 관련이 없을 때, 즉 활동 이전이나 밖에 존재할 때와 이들이 특정 활동 안에서 연결될 때, 각 요소들은 전혀 다른 의미와 역할을 지닌다는 것이다.

## 2.2 주체의 욕구와 EGR 이론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주체다. 활동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주체의 의도에서 출발한다. 이를 일컬어 활동의 주체 주도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Leont’ev[7]는 이러한 활동의 특성을 객체지향활동 개념을 통해 강조하였다. 주체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이나 객체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들은 자신의 고유한 필요를 충족하고, 의도를 실현하고자 외부의 대상(object)을 지향하고(oriented) 있다. 이처럼 주체의 욕구와 의도는 개별 활동체제에 고유한 성격과 방향성을 부여한다.

주체의 욕구에 대한 이해가 활동체제 분석에서 주요한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CHAT은 어떤 종류의 욕구가 존재하며, 이들은 어떤 양상으로 상호 공존, 혹은 결합하는지 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인간 욕구의 유형과 이들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Alderfer의 ERG 이론은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Maslow의 욕구위계 이론을 발전시키고 축약하여, Alderfer[10]는 인간의 욕구가 존재(existence), 관계(relatedness), 성장(growth)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Alderfer의 이론은 이들의 영문 첫 자를 차용하여 EGR 이론으로 부른다.

존재 욕구는 모든 형태의 물질적, 생리적 욕망을 포함한다. 기아와 갈증은 생리적 요구의 결핍의 예이며 교육기관의 맥락에서 수업료와 생활비, 학점, 성적 및 물리적 환경의 조건은 생존 욕구와 관련된 요소들일 수 있다.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공동체에서 소속감을 지니는 등과 관련된 욕구는 관계 욕구에 해당한다. 감독자, 교수자, 급우, 친구 및 가족 구성원은 중요한 타인들의 사례다. 모든 주체들은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안정된 소속감과 친

밀감을 지니고 싶어 한다. 성장의 욕구는 자기 스스로에게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경향과 관련된다. 지식을 넓히고 심화시키는 것은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들의 성장 욕구를 반영하는 주요 사례다.

세 가지 유형의 욕구들은 언제나 공존하고 동시에 작용하고 있으나, 상대적인 위계를 지니고 있다. 즉 존재의 욕구가 가장 기초에 위치한다면, 관계의 욕구와 성장의 욕구는 각각 그 상위에 위치한다. 그리고 욕구 위계에는 세 가지 기본 원리가 작용한다[9]. 첫째, 충족하지 못한 특정 유형의 욕구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원리다. 둘째, 해당 욕구가 충족되면, 주체의 관심은 더 상위의 욕구로 옮겨간다는 원리다. 셋째, 상위의 욕구 충족에 실패하고, 미충족 상태가 지속되면, 상대적으로 만족시키기가 쉬운 낮은 단계로의 회귀가 발생하는 원리다.

## 2.3 활동체제의 중층적 구조

이처럼 존재, 관계, 성장의 단계로 주체의 욕구가 구성된다면, 이들이 추동하는 활동체제 역시 중층적 구조를 지닐 것이다. 상위 단계의 욕구인 성장의 욕구부터 서술하자면, 수업 주제를 학습하기 위한 온라인 토론 활동은 집단적 의미 협상의 과정을 통한 협력적 지식 구성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활동 주체는 지식 구성자, 협력적 학습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토론의 장에 제기된 참여자들의 발언의 의미, 즉 토론 주제와 이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활동 객체로 삼는다.

관계의 욕구 충족에 초점을 맞춘 활동 주체는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고, 주요한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확보하기 위한 사교의 장으로 온라인 토론 활동을 규정한다. 이들은 토론 주제와 관련 발언들을 새로운 의미 창출보다 사회적 교류를 위한 도구로 간주한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사회적 상호작용에의 참여자로 규정하고, 토론 분위기를 개선하고 소속감과 결속력을 높이는 데에 행위의 초점을 맞춘다.

온라인 수업 토론의 맥락에서 참여자들의 존재 욕구는 물리/생물학적 차원과 문화/제도적 차원에서 작동한다. 전자는 상호 소통이 가능하기 위한 기술적, 물리적 조건, 참여자의 건강 상태를 포함한 신체적 조건 등과 관련된다. 만일 교내 통신망이 작동하지 않거나, 예기치 못한 건강상 문제로 실시간 토론 시간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 온라인 수업 토론 활동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

후자의 문화/제도적 차원은 수업, 학교, 직업 세계 등

의 일원으로서 주체에게 요구되는 역할, 의무 등을 일컫는다. 토론 활동은 지식을 구성하고, 사회적으로 교류하는 활동 이전에, 수업의 과제이며, 참여자들의 성적과 나아가 졸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활동 주체들은 온라인 수업 토론은 수업 과제 수행을 통해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물리적 신체적 조건이 확보된 뒤에 비로소 가능하다.

요컨대, 활동체제는 주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존재, 관계, 성장 욕구에 따라 다른 차원으로 드러난다. 특별히 온라인 수업 토론의 맥락에서 이들을 추론한 결과, 물리/생물학적 차원, 문화/제도적 차원, 사회/관계적 차원, 협력적 지식구성의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이들은 단일의 주체 안에 공존하면서, 상대적 충족 여부에 따라 전경(前景)에서 배경(背景)으로, 또는 그 반대로 수시로 변화하며 개별 행위의 초점과 역할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개별 행위의 다양성은 집단적 협력 활동인 온라인 수업 토론에 다채로운 색조와 리듬을 부여함으로써 더욱 복잡하고 역동적인 과정으로 만든다.

### 3. 온라인 수업 토론의 중층적 구조

이 장에서는 주체의 욕구가 전체 활동체제에서 기능하는 양상을 온라인 수업토론의 한 사례를 들어 서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Park[11]이 제시한 수업 토론 내용을 활용하여 재구성하였다. 해당 사례는 미국 중남부에 위치한 대형 주립대학 대학원의 언어심리학 분야 강좌를 배경으로 한다. 해당 수업에서는 실시간 온라인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매주 교실에서 먼저 만나 1 시간 50분 정도의 면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이후 전산실로 옮겨 50분 정도의 온라인 토론 시간을 가졌다. 해당 강좌 수강생은 9명이었고, 언어 및 문해 교육, 교육심리학, 교육공학, 외국어 교육 분야의 전공생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총 13회차의 온라인 토론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이하에 소개할 일화는 1, 3회차에 등장하는 사례들이다. 원문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영문 그대로 제시하였으며, 참여자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대체하였다. 각 메시지 앞에 제시된 일련번호는 해당 차시에 게시된 메시지 순서에 따라 부여되었다. 본문에서는 '#일련번호'의 형식으로 각 메시지를 지칭하였다.

첫 수업에서 강좌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마친 첫 교

실 수업 후, 학생들은 전산실로 옮겨 첫 번째 온라인 토론을 시작하였다. 교수자인 Donna는 학생들에게 '긴 메시지'를 게시하도록 요청했다.

*20. Donna: So let's try to write at least one very long message. so what questions did you have about that whole thing about the schools of thought on the psychology of human learning?*

온라인 토론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고, 모든 학생들이 이 강좌의 독특한 상황에 낯설어 하고 있었다. 모든 참여자들이 전산실이라는 동일한 공간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대화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독특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방금 전까지 같은 교실에서 면대면 토론을 진행하던 동료들이었지만, 온라인 토론방에서의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기 앞서 다시 한 번 인사와 안부, 사회적 담소 등을 나누었다. 위 메시지에서 Donna는 온라인 실시간 토론에 학생들이 익숙해지도록 독려하고 있었다. Raymond가 대답했다.

*28. Raymond: Not so much a question, as a curiosity about how, in fifty years (or thereabouts) historians of psychology will classify the decades beyond 2010*

...

Donna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그는 현재 심리학 분야의 논의들이 미래에는 어떻게 분류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앞선 수업에서 교육 심리학의 역사를 간략히 논의했던 차에, 아마도 최신의 논의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것이다. 교실 수업에서 제기된 주제에 대해 더 심화된 이해를 추구하였으며, 이는 ERG 이론에 의하면, 성장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동기로 이해된다. 그는 교수자와 동료 학습자들이 협력적 지식 구성 활동에 참여하도록 초청함으로써 지적 성장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Raymond의 발언은 다른 측면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 Donna는 교수자로서 학점 부여의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계의 유력한 권위자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인품과 성격의 소유자였다. Raymond에게 있어서 Donna는 여러 면에서 매력적인 존재이고, 중요한 타인이 아닐 수 없다. '긴 메시지를 게시해 보라'는 Donna의 요청은 그에 응답하도록 하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 하고 있었다. #28은 Donna가 자신의 제안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을 때 실망 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게 도

와주며, 첫 수업에서 적극적이고 생산적이며 지지적인 학생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주요한 타인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욕구가 Donna의 요청에 응답하도록 이끌었을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의 더 깊은 심층에 존재 욕구 충족의 동기가 작동하고 있다고도 보아야 한다. 박사 과정 6학기에 재학 중인 Raymond는 궁극적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다. 학위 취득에 실패 할 경우 미래의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 가능한 위험 요인들을 피하기 위해, 그는 교수자에게 적절한 수행을 보여야 하며, 그의 토론 참여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Raymond의 사례는 존재, 관련성 및 성장이라는 세 가지 욕구 유형들이 하나의 활동에서 동시에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수업의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토론에 참여했다. 교수자와 좋은 사회적 관계를 갖기 위해 상호 작용하였으며, 학습 심리학 분야의 최신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 협력적 지식 구성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 4. 온라인 토론 활동의 역동적 전개

개별 활동의 초점과 특정 욕구의 중요성은 활동별로 상이하고, 시기에 따라 변화한다. 주체의 다양하고 변화하는 욕구에 따라 집단적 토론 활동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의외의 방향으로 전개된다.

이 수업에 사용된 토론용 소프트웨어는 새로운 항목이 게시될 때 자동으로 최신 게시물로 이동하도록 설계되었다. 짧은 내용을 빠른 속도로 나누는 용도에는 적합하였지만, 다수의 학생들이 학술적 발언을 교환하기에는 화면의 전환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다. 두 번째 회차의 온라인 토론 이후, Donna는 시스템 관리자에게 자동 화면 전환(auto-scrolling) 기능을 해제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세 번째 회차부터는 사용자가 수동으로 화면을 이동시켜 최신 메시지를 읽어야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었다. 다음은 새로운 기능이 적용된 3회차 온라인 토론의 일부다.

18. Mario: *i dislike that it is not auto-scrolling*

25. Amy: *i miss auto-scrolling too, i thought the conversation hadn't started yet! oops... i'm scrolling*

86. Amy: *i still miss the cognitive "problem-solving" challenge of writing really fast to keep up with the scrolling conversation... a motivating challenge for a writer!*

Donna와는 달리 Mario와 Amy는 '자동 스크롤' 시스템을 선호했다. 그들은 온라인 대화의 빠른 속도에 더 익숙했고, 이들의 게시물에 대문자가 없는 것으로 추측한 건대 인터넷 채팅 문화에 다른 이들보다 더 익숙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 스크롤 기능이 해제되었을 때, 수동 이동은 그들이 익숙했던 방식도 아니고 예상했던 방식도 아니었다. 새로운 시스템은 장문의 느리고 진지한 토론에 더 적합했으며 이는 이들의 예상과 선호와는 거리가 있었다.

시스템의 예기치 않은 변화는 적어도 Mario와 Amy에게는 불편을 초래하였고, 다소 간에라도 이들의 성공적 수행을 방해하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물론 작은 기술적 변화가 초래한 토론 분위기의 변화가 이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들이 위의 불만 사항을 언급하기로 결정했을 때, 주요 동인은 존재의 욕구와 관련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Raymond와 Henry는 대화를 계속했다.

90. Raymond: *"Curse my metal body, I wasn't fast enough!" -C-3PO*

91. Henry: *beep-beep-doop*

Raymond는 장문의 메시지를 진지한 어조로 작성하는 학생 중 한 명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자동 스크롤링이 자신의 관심을 산만하게 만드는 원인이었을 수 있고, 아마도 Mario와 Amy의 불만에 이의를 제기하기를 원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적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견해에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것은 언제나 상대방과 본인의 '체면을 위협하는(face threatening)'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12]. 예의이론(politeness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은 다양한 종류의 전략을 사용하여 '체면'을 관리하고 있으며, #90에서 Raymond의 경우 '농담'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3]. Mario와 Amy가 기술적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Raymond의 발언은 사회적 관계 차원의 고려가 더 전면에서 부각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90에서 의미하는 바는, 여전히 기술적(수동화면이동시스템에 대한 선호) 수준의 문제였지만, Mario, Amy와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고려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부각된다.

Henry는 수업 참여자들 중 메시지의 평균 길이가 가장 짧았고, 어조나 발언 내용에 있어서도 가장 재치있고, 생동감 넘치는 특성을 지녔다. 이런 성향으로 짐작해 보건대, 자동 스크롤 기능과 관련하여, Mario나 Amy 등과 유사한 입장을 지녔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본인의 선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발언이 없었고, 다만 대화의 흐름을 보다 즐거운 분위기로 전환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91에서, 사회적 관계의 욕구는 Henry의 활동을 추동하는 주요 동인으로 전면 부각되어 있다.

Mario와 Amy는 본인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기술적 문제를 제기했다. Raymond와 Henry는 이를 이어 받아 토론을 지속시켰지만, 초점은 사회적 관계의 수준으로 전환되었다. 이 때, Donna의 개입으로 수업 토론 활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95. Donna: *You guys are so fun! I do love to think of the robots in Star Trek and Star Wars and what their creators make us think about what it means to be human. And then, moving on to our model of "real" (what's real?) people, I can't help but like this idea of the BIOLOGY of the writer. Like Amy a second ago ruing the fact that she no longer has to juggle between reading and writing quite as quickly just to keep up with the scrolling system of this program. I think the biology of humans adds an interesting dimension to what we think of when we describe writing*

113. Mario: *Donna, when you said about the "biology" of the writer, I honestly couldn't really help but think of perhaps the "imperfection" of the writer - that is, that we are unique and imperfect (from one another) in our means of communication*

#95에서 Donna의 발언은 교수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동기과 관련된다. 해당 주차 교실 수업에서는 작문 연구 분야에서의 주요 학파들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계획상, 전통적인 과정-인지 모델, 사회문화적 이론, 생태학적 접근 등을 다루기로 했었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생태주의 관련 논의는 수업 종료 시점에 간단히 언급된 정도였고, 온라인 토론에서도 관련 주제가 언급되지 않고 있었다. 수업을 계획하고 주차별 읽기 자료를 선정했

던 교수자로서, Donna는 계획된 주제들을 모두 포괄해내 고자 노력했다. 추측건대, Mario에게서 시작된 글타래를 읽으며,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생태주의 관련 주제를 토론 무대에 올릴 수 있는 기회로 여겼을 수 있다.

동시에, 관계의 욕구 역시 Donna의 발언을 구성하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You guys are so fun! I do love to think of the robots in Star Trek and Star Wars..."에서 볼 수 있듯이, Donna는 Henry 등의 유머와 재치를 인정하고, 칭찬함으로써 토론 활동 중 임시로 형성된 담화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 글쓰기와 관련된 물리-기술적, 생물학적 이슈가 제기되었을 때, 언어심리학 분야에서, 생태주의 관점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로서 순수한 지적 호기심이 발동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성장의 욕구가 토론 참여의 동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교수자로서(존재), 담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관계), 그리고 연구자 혹은 학습자로서(성장)의 Donna의 욕구는 서로 공존하고 상호작용하고 있었다. 어떤 욕구가 가장 전경(前景)에서 작용하고 있는지는 위 인문문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경우는 관련 토론의 초점을 다른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후 Mario의 응답(#113)을 통해서 Donna의 의도는 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교수자를 포함한 10명의 활동 주체들은 온라인 토론 활동에의 참여를 통해 각자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였다. Alderfer의 ERG 이론에 근거할 때, 이들 욕구는 존재, 관계, 성장의 욕구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 상이한 욕구는 한 개인 내에 동시에 존재하며, 개별 발화 단위에서도 모든 욕구 충족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이한 욕구들은 개인적 특성이나 상황 맥락에 따라 다르게 부각되고, 배열됨으로써 개별 발화의 방향과 성격을 달리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개별적 욕구와 의도의 차이는, 소집단 토론 활동 상황에서, 상호 간의 결합과 협상을 통해 역동적이고 예측불가능한 방식으로 온라인 수업 토론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었다.

## 5. 결론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업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 활동은 복잡계의 특성을 지닌다[14]. 개별 발화의 의미와 의도는 중층적으로 구성되고, 이들이 이

루어내는 집단적 지식구성 활동은 통제불가능한 역동성을 가지게 된다[15].

활동 주체로서 개별 참여자들의 고유한 필요와 욕구는 온라인 수업 토론의 방향과 전개 양상을 규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대략적으로 서술하건대, 각 활동 주체들은 교수, 학생으로서의 존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토론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관계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동료들과 ‘교류’하고 있고, 성장 욕구의 측면에서 집단적으로 지식을 ‘구성’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층위는 단일한 활동 안에 공존하면서, 맥락에 따라서 상이한 방식으로 발화의 성격을 규정한다. 토론 활동에 참여하는 동료들은 서로의 의도에 따라 협력, 혹은 경쟁하면서 전체로서의 활동체제를 발전시켜 나간다.

본 연구에서는 Alderfer의 ERG 이론을 활용하여 활동 주체의 욕구를 분석함으로써 온라인 수업 토론 활동 체제의 증충성과 역동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하지만 두 이론 모두 온라인 토론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인간의 보편적 욕구와 활동의 특성을 설명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논점을 명확히 하고자 연구의 초점을 온라인 수업 토론 상황으로 제한하였으나, 시사하는 범위는 이를 넘어설 것이다. 보다 보편적 쟁점과 논의는 추후 연구의 과제로 넘긴다.

REFERENCES

[1] J. Bergmann, & A. Sams. (2014) *Flipped learning: Maximizing face time. T+D*, 68(2), 28-31.

[2] R. Luppici. (2007). Review of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research for education. *Instructional Science*, 35(2), 141-185.

[3] A. Tolmie, & J. Boyle. (2000). Factors influencing the success of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CMC) environments in university teaching: A review and case study. *Computers & Education*, 34(2), 119-140.

[4] P. Resta, & T. Laferrière. (2007). Technology in support of collaborative learning.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9(1), 65-83.

[5] Y. Park. (2011). Utterance as Activity: A Discussion on Unit of Analysis for CMC Research.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27(4), 781-801.

[6] D. Backhurst. (2009). Reflections on activity theory. *Educational Review*, 61(2), 197-210.

[7] A. N. Leont'ev. (1978). Activity, consciousness, and

personality.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8] L. S. Vygotsky. (1980).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Harvard university press.

[9] Y. Engeström. (1987). *Learning by expanding: an activity-theoretical approach to developmental research*. Helsinki, Finland: Orienta Konultit.

[10] C. P. Alderfer. (1972). *Existence, relatedness, and growth*. New York: The Free Press.

[11] Y. Park. (2010). Graduate students' discourse activity in synchronous online classroom discussion (Doctoral dissertation).

[12] P. Brown, & S. Levinson.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3] D. L. Schallert, Y. H. V. Chiang, Y. Park, M. E. Jordan, H. Lee, A. C. J. Cheng, & K. Song. (2009). Being polite while fulfilling different discourse functions in online classroom discussions. *Computers & Education*, 53(3), 713-725.

[14] M. De Laat, & V. Lally. (2003). Complexity, theory and praxis: researching collaborative learning and tutoring processes in a networked learning community. *Instructional Science*, 31(1/2), 7-39.

[15] M. Jordan, D. L. Schallert, A. Cheng, Y. Park, H. Lee, Y. Chen, & Y. Chang. (2007). Seeking self-organization in classroom computer-mediated discussion through a complex adaptive systems lens. *Yearbook of the National Reading Conference*, 56, 39-53.

박 양 주 (Yangjoo Park)

[정회원]



- 1998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0년 12월 :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철학박사, 교육공학 전공)
- 2015년 3월 ~ 현재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교육공학, 사회문화적 교육이론, 매체와 수업혁신

• E-Mail : yjpark90@hnu.kr